

아파트 실내 공간을 내 마음대로 바꾼다

# 더 넓고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가변형 아파트 인기

'똑같은 아파트는 싫다.' 거실, 침실 구조와 개수도 내 맘대로 내가 디자인하는 가변형 설계 아파트가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건설사들이 실내 공간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는 가변형 설계를 선보이고 있다. 가변형 설계 아파트의 트렌드와 건설사별로 가변형 구조를 어떻게 선보이는지 살펴보자. 에디터 김소진



일반 주부들이 보다 손쉽게 아파트 구조를 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1990년대부터 일찌감치 침실과 침실 사이, 침실과 거실 사이의 벽을 터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벽식 구조를 선보였다. 과거에는 아파트 실내 구조의 변경이 쉽지 않고 트렌드화되지 않아 가변형 설계가 이슈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아파트 내부 공간을 자유자재로 개조할 수 있는 가변형 설계가 주택 업계의 트렌드로 대두됐다.

최근 들어 각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집을 개성있게 꾸미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친편일률적으로 찍어 낸 듯한 구조와 어느 집이나 비슷비슷한 인테리어에 실증을 느낀 수요자들이 실내 구조를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은 주부들은 주방과 거실, 침실 등을 기존 구조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바꿔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주택 건설업체들은 가변형 벽식 구조를 통해

지금도 아파트 평면을 중심으로 가변형 설계를 선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아파트 내 커뮤니티, 에너지 절약 시스템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해 궁극적으로 고객 맞춤형 아파트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벽체 매입형·접이식 도어 사용해 공간 활용 다양하게  
벽산건설은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공간 구조를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스타일을 선택하는 '셀프 디자인 프로젝트(Self-Design Projec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벽산건설이 2004년 말에 분양한 부산은

천동 Astar 아파트가 본격적인 셀프 디자인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52층 규모의 Astar 아파트는 플랫 슬라브(Flat Slab) 구조를 적용해 벽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에는 양천구 신월동과 수원 정자동, 천안 청당동, 원주 개운동에 분양된 아파트에 가변형 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평면을 선보였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마룻 바닥과 주방 가구, 현관 대리석의 색상과 안방 발코니 창문의 높낮이 등 다양한 맞춤 선택 사항을 제시했다. 작년 12월 분양한 인천 도림지구의 아파트도 플랫 슬라브 구조를 적용해 화장실과 주방을 제외한 모든 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재건축 규제 강화와 리모델링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는 등 사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2003년 설계 단계부터 리모델링을 고려한 '가변형 평면' 을 도입· 적용해왔다.

구조용 벽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무빙 퍼니처(Moving Furniture)를 이용해 손쉽게 벽을 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수납 공간이 크게 늘어나 실내가 넓어 보이고 좀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벽체 매입형 도어(Pocket-Door)를 도입해 공간의 분할과 통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접이식 도어(Folding-Door)를 거실과 부부 침실 전면에 설치해 시각적인 개방감이 높고 환기에 유리하도록 했다.

기존 소형 평형에서는 2베이~3.5베이로 구성했지만 신 평면에서는 4베이로 거실과 침실이 모두 남향에 면하도록 설계해 채광과 환기를 높였다. 그리고 현관에서 주방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식료품 배달과 음식물 쓰레기 반출 등이 용이하도록 했다.

주방을 확장해 쓸 수 있는 포켓 발코니 '인기' 금호건설은 1990년대 후반부

터 침실과 침실 사이, 침실과 거실 사이를 구조벽이 아닌 경량간막이로 막아 철거가 가능하도록 만든 가변형 설계 구조를 적용해왔다.

포항 우현지구의 일부 평형도 원하는 세대에 한해 간막이를 하거나 벽체를 터서 넓은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둥과 보로 구성된 벽의 보 밑에 석고 보드를 설치해 필요에 따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가변형 설계는 옵션 사항이 아니고 동일한 분양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GS건설은 아파트 시공 사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벽을 터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벽식 구조를 적용해오다가 최근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에는 주방을 확장해 식품 창고나 운동 공간으로 쓸 수 있는 포켓 발코니를 만드는 식으로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포켓 발코니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적용하기는 힘들고 층수가 높고 동수가 많지 않으면서도 전용면적이 넓은 경우 가능하다. 서울 지역은 대부분 용적률이 높아 힘들고 판교와 같은 택지개발지구에 분양되는 아파트에 많이 적용된다.

대한주택공사는 10평형대에도 가변형 벽식 구조를 적용할 예정이다. 10평형대 임대아파트의 경우 위아래나 옆 세대와 합칠 수 있도록 내력벽을 사용하지 않는 가변형 구조를 적용하게 된다. ☺



※ 자료 제공 : 현대산업개발